

“고품질 딸기 생산...재배부터 포장까지 공들이죠”

新 농촌 꿈꾸는 청년농업인

이대룡 보성 딸기조양농장 대표

건설업 종사하다 2018년 귀농...‘설향’ 전향 서울 출하
고령화 시대 맞춰 치유농업·실버타운 등 연계 운영 목표

“재배부터 포장까지 어느 것 하나 공
들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보성군 벌교읍에서 ‘딸기조양’ 농장
을 운영하고 있는 이대룡(41) 대표는 2
018년 약 2천644㎡(800평) 규모의 농장
을 열어 고품질 딸기 생산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농장들의 트랜
드(?) 격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신 재
배에 더 주력해 품질 좋은 딸기 생산에
몰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남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다 딸기농장을 하는 주위 지인
의 추천으로 딸기 재배의 길에 들어서
게 됐다.

본격적인 귀농에 앞서 2017년 보성
소재 딸기농장에서 3개월 간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이후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2018년 현장학습 교육장
(WPL)에서 7개월가량 고품질 딸기 생
산 수업을 들으며 작물 이해, 재배 방법
등에 대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론과
실무 능력을 길렀다.

이 대표는 또 건설업 종사 경험을 살
려 시설하우스 설치 시 인력이 꼭 필요
한 부분이 아니면 직접 설비에 손을 보
냈다.

하지만 이런 준비에도 불구하고 농
사 첫 해와 두 번째 해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딸기는
병충해에 약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않거나, 예방이 미흡할 경우 큰 손
실을 입기 때문이다.

농사 3년 차에 이 대표는 2년 간의 농
사 경험과 병충해에 대처하기 위한 많
은 공부를 통해 성공적으로 딸기를 생



이대룡 보성 딸기조양농장 대표가 딸기를 생산하기 위한 흙을 만지며 재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현지기자

산할 수 있었고, 5년 차가 된 현재는 노
하우를 축적하며 재배 기술을 더욱 안
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시장에서 많이 찾는 품종
인 설향을 재배하고 있으며 더 좋은 품
질의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비료, 약 등
생산 과정 전반에 힘을 쏟고 있다.

딸기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도
록 포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으며, 딸기
수확시기 등을 잘 맞춰 좋은 색깔이 나
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크기 별로 예

계 담아 내놓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O)을
통해 전향 서울 경매장으로 출하되는 이
대표의 딸기는 좋은 품질에 걸맞은 포장
으로 경매에서 높은 값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20년 결성한 보성 청년
창농연구회의 회장직도 맡고 있어 연
구회를 통해 창업을 한 청년농들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힘든 점을 서로 상
담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 소득 증대
방안 등을 공유하는 등 좋은 영향을 주

고받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치유농업, 실버타운 등을 연결하
는 것이다.

이 대표는 “처음 농장을 시작할 때부
터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었고, 건설업
에 종사했던 터라 실버타운을 접목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접
목시켜 운영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
혔다. /김현지기자



전남, 어린이 손모내기 체험 눈길

담양 ‘범새마을학교’에서 호기심 많
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벼농사, 유기
농업 생태환경, 농촌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손모내기 행사가 펼쳐
져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14일 (사)전남친환경농업
협회와 담양 범새마을학교에서 주관하
는 ‘2023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 손모내기’ 체험 행사가 최근 담양 창
평면 삼천리 하삼천마을에서 진행됐
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전남농협, 농업현안 청년 소통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도내 청년농업인을 전남본부로 초청해
‘전남 광역농산물브랜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전남 광역농산물브랜드
‘삼림에(원예농산물)’와 ‘오매향(아열
대과일)’의 청년농업인 참여 기회를 확
대하고 신규 품목 발굴과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전남농협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농협은 청년농업인 특판전에 대
한 결과를 청년농업인과 공유하고, 농
업 현안과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지기자

흰색 목이버섯 ‘새얀’ 북미 진출 청신호

도농기원 육성 품종...씨아이인터내셔널·내추럴코리아와 제휴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4일 ‘자체 육
성 흰색 목이버섯 ‘새얀’을 비롯해 버섯
신품종을 북미지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목이버섯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
식 개별 고시한 건강기능성 식품이다. 베
타글루칸·총폴리페놀·단백질·칼슘·비
타민D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 있다.

특히 북미지역 진출을 추진하고 있
는 ‘새얀’ 품종은 지방 분해력이 우수한
버섯으로 특허출원된 유일한 흰색 품
종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우수
버섯 품종을 기반으로 성분 분석과 제
품 개발을 통해 산업화와 북미지역 진
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씨아이
인터내셔널(CIG), (주)Natural Korea와
지난 4월 전략적 제휴를 맺고 K-food,



K-beauty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주)씨아이인터내셔널과 (주)내추럴
코리아는 우수 특성을 가진 목이버섯
‘새얀’을 원재료로 해 원료 추출과 성분
분석을 통해 화장품·비건식품을 개발,
미국과 캐나다에 진출할 계획이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지속
적으로 성장하는 비건 시장을 고려할
때 전략적 제휴를 통해 버섯산업 활성
화와 농가 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 6월 전통주 백운주가 ‘오디주’ 선정

백운산 오디·광양쌀 100%...부드러움·신선한 맛 조화

전남도는 14일 “6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백운산 줄기에서 자란 오디
와 광양 쌀 100%로 빚어 부드러움과 신
선한 맛이 조화로운 광양 백운주가의
‘오디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로 6월이 제철이
다. 비슷한 북분자보다 달콤하다. 백운
주가에서는 백운산에서 자란 양질의
오디만을 엄선해 빚는다. 저온 숙성 발
효 공정을 통해 신선한 오디 과육 본연
의 맛과 향이 살아있다.

알코올 13%의 오디주는 오디 특유의
달콤한 맛으로 술맛이 강하지 않아 누
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또 고급
스러운 병 디자인과 포장은 선물용으
로 적합해 고향사랑기부제 광양시 담
례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양의 자연을 담은 백운주가의 술
은 오디주와 같이 선물하기 좋은 ‘복분
자주’, ‘블루베리주’, 깔끔한 맛의 ‘대나
무술’ 등이 있다.

백운주가의 술은 맛을 인정받아 2009
년부터 전남도가 개최하는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17번의 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 이런 백운주가의 노하우를 살려
광양의 대표 특산물 매실과 광양 망덕
포구 앞 운동주 유교 보존 가옥인 정병
육 가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알코올 17
% 증류주 ‘별해주 1911’도 출시했다.

강성일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 농
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통주 홍보를 위한 새로운 제품 발굴
에 노력하고 있다”며 “광양 백운주가
처럼 지역 우수 업체가 발굴되도록 오



는 7월 열리는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농협 광주공판장, 영농 지원 ‘구슬땀’

농협 광주공판장은 14일 ‘농번기 농
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12
일 영암군 도포면 소재 육묘장에서 농
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촌일손돕기에는 정구영 농협 광주
공판장장을 비롯해 직원 20여명이 참
여했으며 육묘 나르기, 환경 정리 등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농협 광주공판장은 코로나19이후 일
손 부족 문제가 더욱 가중돼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돕기 위해 예년보다 더 많
은 직원들이 참여했다. /김현지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 한국화학연구원 | DREAM |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드림케미칼코리아 |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 문의 : 080-362-7788 | www.dreamchemicalkorea.com